



# 루터의 도시를 가다

# 15

## 비텐베르크에서의 결혼 3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해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십 년 전부터 기념 행사들을 시행해 왔고,

세계 여러 나라들도 종교개혁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세속화가 거센 오늘날, 종교개혁의 슬로건처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루터가 걸어간 개혁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기독교, 교회, 신앙인이 먼저 믿음과 생활의 개혁으로 그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루터는 자신의 삶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보라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한 학생이 보라의 집 문을 두드렸다. 몹시 당황하는 학생의 목소리에서 루터라는 말이 어렴풋이 들려 왔다. “보라!! 루터 선생님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보라는 수녀원에 있을 때 산과 들로 나가 약초를 캐어 생약을 달이는 기술을 습득했다. 사람들은 보라를 의원처럼 여기고 있었다. 보라는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루터에게 정성스레 고른 약초

를 다려 마시게 했다. 좀 전까지 배를 움켜쥐며 잠을 이루지 못하던 루터는 보라가 다린 약초를 마시고는 고요히 잠을 청할 수 있게 되었다. 침대 옆에서 병상을 지키던 보라는 고개를 떨구고 잠에 빠졌다. 방안에 햇불이 어른거렸다. 보라는 문득 인기척을 느꼈다. 고개를 들고 보니 루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루터는 보라가 잠에서 깨자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루터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녀는 알 것 같았다. 그녀 또한 루터를 다른 어느 때와는 다른 감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1525년 6월 13일, 루터와 보라는 드디어 결혼 예식을 올렸다. 비텐베르크는 축제 분위기에 싸였다. 루터를 통해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여 자유를 얻게 된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다. 루터와 보라의 결혼은 가정의 신성함을 가르쳐주는 계기가 되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랑의 공동체다. 가정은 부부의 사랑이 모태가 되는 것이요, 거룩한 삶이 깃드는 곳이다. 그리하여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의 장소였다. 루터와 보라의 결혼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모범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비텐베르크 성 밖,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이 결혼식은 불경스런 신성모독이었다. 그들에게 루터는 파계한 수도승이요, 보라는 수녀원을 탈출한 마녀라는 것이었다. 로마 교황이 공개적으로 파문한 루터의 결혼식이 신성하다고 추켜세울 리 만무하다. 반대파들에게 루터와 보라의 결혼은 모진 공격을 받았지만 이들의 결혼은 종교개혁 과정 가운데 새로운 의미를 세우는 중요한 일 중 하나였다. 가정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이들이 함께 선을 이루어가며 세워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깃든 공동체라는 깨달음이다. 루터는 보라와 결혼을 하므로 개혁에 더욱 매진할 수 있었다. 보라가 루터의 살림을 도맡아 줌으로서 루터가 일상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은 서로에게 새로운 자유를 선사하는 은혜의 통로인 것이다.

글 | 추태환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로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